

# ‘유탄’ 한 거물들, 2018 KBO리그 판도 바꾼다

kt행 황재균 시작 넥센 박병호·LG행 김현수 차례로 국내 복귀

세 팀 올해 포스트시즌 진출 못해...각종 타이틀 경쟁도 치열 예상

꿈의 무대에 서기 위해 태평양을 건넌던 거물급 선수들이 약속이나 한 듯 KBO리그로 돌아왔다.

3년 연속 최하위팀 kt 유니폼을 입은 황재균(30)을 시작으로 박병호(31·넥센), 김현수(29·LG)가 차례로 국내 복귀를 선언했다.

리그 정상급 실력을 가진 이들의 복귀는 내년 시즌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변수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합류한 세 팀은 올 시즌 포스트 시즌에 나서지 못했다.

이들이 미국 진출 이전의 성적을 보여준다면 소속팀의 전력을 대폭 끌어올리는 한편, 각종 타이틀 경쟁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재균·박병호·김현수, 빅리그 도전 접고 국내 복귀

황재균은 빅리그 도전 1년 만에 돌아왔다. 지난 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선수(FA) 신분으로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1년 총액 310만 달러(약 36억원)에 스플릿 계약을 맺으며 꿈에 그리던 미국 무대를 밟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소속팀은 지구 최하위의 약체였음에도 황재균은 메이저리그 18경기 출전에 그쳤다. 시즌 대부분을 마이너리그에서 보내다 일찌감치

도전의지를 접고 국내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달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황재균은 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문 kt와 4년 총액 88억원에 계약했다.

이어 4년 연속 KBO리그 홈런왕 박병호도 2년간의 미국 생활을 접고 진정팀 넥센으로 돌아왔다.

2016시즌이 끝나고 아시아 출신 야수로는 두 번째로 높은 1285만 달러의 포스팅 금액을 기록하며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빅리그 무대에 뛰어 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2016시즌 초반 홈런포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부상으로 62경기 출전에 그쳤다. 올 시즌에는 단 한 번도 풀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마이너리그에 머물렀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2016시즌 초반 홈런포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부상으로 62경기 출전에 그쳤다. 올 시즌에는 단 한 번도 풀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마이너리그에 머물렀다.

박병호는 미네소타와 2+1년 계약이 남았지만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연봉 15억원에 넥센행을 결정했다.

최근 김현수도 메이저리그 잔류와 국내 복귀를 두고 저울질하다 LG의 구애를 받고 유탄을 확정했다. 첫째 96경기에 내서 3할(0.302) 타율을 기록하며 연착륙하는 듯했으나 올 시즌에는 벤치만 달렸다.

급기야 트레이드까지 경험하며 존재감을 잃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필요로 하는 빅리그 구단이 있

는지 찾았지만 결국 4년 115억원에 두산의 라이벌 LG 유니폼을 입게 됐다.

◇순위 싸움·타이틀 경쟁 요동칠 듯

국내 유탄파가 동지를 둔 팀은 모두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이들을 영입한 세 팀은 모두 가을 야구를 목표로 전력 보강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한 셈이다.

올 시즌 5년 만에 포스트시즌을 경험한 롯데는 일본과 미국 무대를 경험한 이대호(36)를 역대 FA 최고액인 150억원을 주고 데려왔다.

롯데는 이대호 영입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대호는 정규 시즌 단 2경기만 제외한 142경기에 출전, 타율 0.320 34홈런 111타점을 거두며 몸값에 걸맞은 활약을 펼쳤다. 팀 성적도 수직상승해 5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하며 야구 도시 부산을 뜨겁게 달궜다.

국내 유탄파가 합류한 팀들 역시 전력 보강과 함께 체질 개선은 물론, 성적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kt는 황재균의 합류로 고질적인 3루 고민을 떨칠 수 있게 됐다. kt는 1군 합류 후 두 시즌 동안 외국인 선수에게 핫코너를 맡겼다. 올 시즌에는 입자 없이 돌려 막기에 비뚤다.



황재균이 합류하면서 내야 포지션에 대한 쟁쟁함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공격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거포 박병호가 합류한 넥센 역시 2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을 노린다. 넥센은 박병호의 홈런왕 네 시즌 중 첫해인 2012년을 제외하고 3년 연속 가을 야구를 했다. 그 원동력은 KBO리그를 지배한 박병호였다.

박병호의 합류로 위력적인 넥센 타선은 더욱 막강한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2년 만에 가을 야구를 꿈꾼다.

이전 소속팀과 연고지 라이벌 관계에 있는 LG 유니폼을 입게 된 김현수는 허술한 LG 외야 라인업에 무게감을 더했다. 동시에 팀내

유망주들에 대한 경쟁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리빌딩 기초를 다지는 데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복귀는 타이틀 경쟁 역시 후끈 달아오르게 할 전망이다.

‘타격기계’라 불린 김현수는 2008년 타격과 2008·2009년 최다 안타 부분 1위를 했다. 건강하게 시즌을 소화한다면 타율 0.350과 180안타 이상을 바라볼 수 있다. 타이틀 방어를 나서는 김진민(KIA·타율 1위)과 손아섭(롯데·최다안타 1위)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홈런왕 경쟁은 벌써부터 관심이 다. 박병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최정(SK)은 2년 연속 홈런왕을 차지하며 KBO리그 최고 거포 자리에

올랐다.

박병호는 2012~2015년 4년 연속 홈런왕 타이틀을 가져갔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인 2014년과 2015년에는 2년 연속 50홈런을 때려내기도 했다.

2012년 박병호는 31홈런으로 첫 홈런왕에 올랐다. 그 해 최정은 26홈런으로 이 부분 2위를 했다. 그 동안 둘은 서로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했지만 5년 만에 박병호의 복귀로 정점에서 진검 승부를 벌이게 됐다.

개인 타이틀과 인연이 없었던 황재균은 생애 첫 골든글러브에 도전한다. 황재균은 최정과 박석민(NC)에 밀려 단 한 번도 가지 못한 황금장갑의 주인이 되려 한다.

뉴스스

## 오승환, MLB 클리블랜드 가려나...“충분한 불펜 자원”

팬데그스포츠 “오승환 계약 규모 400만 달러 예상”



새로운 동지를 찾고 있는 자유계약선수(FA) 오승환(35)이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MLB닷컴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오승환에 어울리는 팀이라는 평가를 내렸고, 팬데그스포츠는 오승환의 계약 규모를 1년 400만 달러(약 43억1000만 원)로 전망했다.

MLB닷컴은 25일(현지시간) 크리스마스까지 30개 구단에 선물이 될 만한 영입 후보를 꼽으며 오승환을 클리블랜드에 꼽았다. 올 시즌을 마친 뒤 FA가 된 브라이언 쇼와

조 스미스를 각각 콜로라도 로키스 휴스턴 애스트로스 로키스 클리블랜드가 불펜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오승환이 적격이라는 것이다.

“오승환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불펜 자원이다. 오승환이 클리블랜드에서 뛰게 된다면 ‘오 하이오(Ohio)’라는 언어유희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클리블랜드가 있는 오하이오주에 빛낸 농담이다.

팬데그스포츠는 이날 FA 상위 80명의 계약 규모를 예상하면서 오승환의 가치를 1년 400만 달러로 점쳤다. 전문가와 기사를 작성한 존

헤이먼 모두 같은 의견이다. 헤이먼은 “파이널 보스가 지난해 주춤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오승환은 빅리그 데뷔 시즌인 지난해 6승 3패 19세이브 14홀드 평균자책점 1.92라는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중간계투로 시작했지만, 마무리 투수였던 트레버 로젠달의 부상과 부진으로 마무리 투수로 올라섰다.

올 시즌을 마무리 투수로 출발한 오승환은 다소 주춤했다. 62경기에서 59⅓이닝을 던지며 1승 6패 20세이브 7홀드 평균자책점 4.10에 그쳤다. 시즌 중반 중간계투로 밀려나기도 했다.

하지만 빅리그에서 통하는 투수라는 점을 보여준만큼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불펜 투수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올겨울 FA 불펜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것도 오승환에게는 호재다.

올해 5승 5패 6세이브 22홀드 평균자책점 2.61을 기록한 후안 니카시오는 2년간 1700만 달러에 시애틀 매리너스와 계약했고 앤서니 스와잭은 2년간 1400만 달러에 뉴욕 메츠 유니폼을 입었다.

오승환은 서두르지 않고 있다. 시즌을 마치고 지난 10월 귀국, 국내에 머물던 오승환은 곧 일본 오기나와로 떠나 개인 훈련을 할 예정이다.

뉴스스

## 이정후 손가락 골절,美캠프 못간다...수술없이 깎스 6주

내년 시즌 시범경기는 정상 출전 예상

2017 신인왕 이정후(19·넥센 히어로즈)가 훈련 도중 오른 손가락을 다쳐 내년 미국 스프링캠프에 참가하지 못한다.

넥센 구단은 26일 “이정후가 지난 20일 웨이트 훈련 도중 덤벨에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 끝마디를 다쳤다”고 밝혔다.

“부상 당일 1차 검진 결과 다친 손가락이 골절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날 2차 정밀 검사 결과, 수술 없이 손가락 깎스 상태로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소견이 나왔다.”

이정후는 내년 2월1일 시작되는 미국 스프링캠프 참가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내에서 치료와 재활을 이어갈 예정이다.

넥센 구단은 “6주 간의 치료와 재활을 마치게 되는 내년 2월 중순부터 기술 훈련이 가능하다. 내년 3월 시작되는 2018시즌 시범경기부터 정상적인 경기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올 시즌 전 경기(144경기)에 출전한 이정후는 타율 0.324(552타수 179안타) 2홈런 47타점 12도루 111득점을 기록했다. 역대 신인 최다 안타와 최다 득점 기록을 모두 잡아 치운 이정후는 올 시즌 신인왕을 거머쥐었다.

뉴스스



이상화 라이벌 고다이아라, 평창 日선수단 주장 유력

일본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선수단 주장으로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의 고다이아라(나오(31))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 일본 유력매체들은 24일 “일본올림픽위원회(JOC)가 내년 2월 평창동계 올림픽 선수단 주장에 고다이아라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검토 중이다”고 보도했다.

고다이아라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500m에서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까지 15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단거리 강자다. 1000m에선 세계기록도 세웠다. 두 종목에서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힌다.

고다이아라 올림픽 선수단 주장에 선정되면 일본은 2006 토리노대회의 오키자키 도모미(스피드스케이팅) 이후 12년 만에 여자 선수에게 완장을 주는 것이다. 그만큼 금메달에 대한 기대가 크다.

## “오타니, 내년 성적 11승·11홈런 예상”

미국 무대에서도 오타니 쇼헤이(23·LA 에인절스)의 ‘투타겸업’이 통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야구통계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이 통계 프로그램 스티머로 오타니의 2018년 성적을 예측했다.

스티머는 11승에 11홈런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스티머는 오타니가 내년 시즌 24경기(148이닝)에 등판해 11승과 평

균자책점 3.48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체선수대비승리기여도(WAR)는 3.1로 팀에 3승을 더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스티머는 타자 오타니가 0.257의 타율에 11홈런 36타점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오타니는 지난 2012년 드래프트 1순위로 니혼햄 파이터스에 입단했다. 2년차인 2014년 일본프로야구

최초로 한 시즌 두 자릿수 승수(11승)와 홈런(10홈런)을 동시에 달성했다. 지난 시즌에는 10승 4패 평균자책점 1.86과 함께 타율 0.322, 22홈런으로 리그 MVP를 차지했고 팀의 일본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5시즌 동안 투수로 42승 15패 평균자책 2.52, 타자로는 타율 0.285 48홈런 166타점을 기록하는 등 놀라운 활약을 펼쳤다.

한편, 오타니는 25일 홈구장인 삿포로돔에서 고별 기자회견에 임한다.

## 손흥민,英BBC 전문가선정 ‘올해의 베스트11’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26·토트넘)이 영국 BBC 전문가가 선정한 올해의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다.

BBC는 25일(한국시간) 크리스 워들(전 잉글랜드 국가대표), 팻 너빈(전 스코틀랜드 국가대표), 이안 데니스(BBC 라디오5 라이브 시니어 리포터), 픽 맥널티(BBC스포츠 수

석 축구기자) 등 축구전문가 4명이 뽑은 2017년 EPL 베스트11을 공개했다.

이중 이안 데니스가 4-1-4-1 포메이션에서 왼쪽 미드필더 손흥민을 택했다. 손흥민은 모하메드 살라(리버풀), 케빈 데 브라위너, 다비드 실바(이상 맨체스터 시티)와 함께 미드필더에 자리했다.

